

사랑티켓 참가작
극단 액터스 제24회 정기공연

당이물로 걸어오듯

고연옥 작
손병태 연출



울속도문화회관 소극장
2013년 11월 6일(수) - 9일(토)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5시

문의 전화: 010-9126-8323

후원



본 공연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무대지원금 일부를 지원받아 공연됩니다

뛰어봐!
날아봐!
펼쳐봐!

DEPT
OF
THEATRE
BUSAN
ARTS
COLLEGE

연극과 98학번
길건

모두 모여! 연극과에서
너의 끼/를 찾아봐!

무대 위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자!!!

“꿈★을 이루어주는 연극과”

스타일의 통용문, 연극과.

그러나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지질을 습득할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스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꿈★을 만들어 가는 곳,

부산·경남 유일의

실기 중심 부산예술대학교 연극과가

책임집니다.



부산예술대학교 연극과

608-025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동 1552

TEL : 051-611-3705

일시문의 : 010-9126-8323



손 병 태
부산예술대학교 연극과 교수,
연출가

2012년 처음으로 함께 했던 고연옥 선생님의 <내가 까마귀였을 때>의 공연을 끝내고 난 뒤 작품에 매료되어 무작정 또 다른 희곡을 부탁드렸고 작가 선생님께서는 가장 애정을 가졌던 희곡 <달이 물로 걸어오듯>을 기꺼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듯 일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그 막을 올리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믿음이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회의하고 의심해야 하는 부담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앞에 왜곡되기 쉬운, 어쩌면 자기 부정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살 가운데 닥치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쓰여 진 이 작품은 존속 실인이라는 극단적인 소재를 통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심변두리의 술집 여중업원인 경자는 화물차 운전수인 수남과 이십년이란 나이 차이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밈니다. 경자가 임신 9개월인 어느 날 만삭인 경자를 위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딸기를 사두고 새벽에 집에 돌아온 수남에게 경자는 자신이 살해해 장롱 속에 숨겨둔 새엄마와 여동생의 시체를 보여주며 감옥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면서 경자는 수남을 남겨두고 떠나려하고, 수남은 자신이 아기와 경자를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자수하겠다고 경자를 설득합니다. 경자를 대신해 자수한 수남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모르고 있던 경자의 과거진실과 점점 자신을 폭력남편이자 잔인한 살인자로 돌아가는 경자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혼란과 갈등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

작가는 <달이 물로 걸어오듯>을 통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영원과 조우하려는 한 인간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언제나 그 경계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절대적 고독을 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한 남자의 고뇌와 갈등을 통해 사회 속에 인간 존재의 진실된 모습을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희곡을 선 듯 내어주신 작가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이 작품과 씨름했던 영원한 연극동지 호민교과 구민주 선생님 그리고 참여한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 그 위대한 단어 앞에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랑”으로 가정의 행복을 누리시는 관객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작품은 아내와 함께 아내의 의붓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던 한 남자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아내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그는 판사에게 자신의 형량을 낮춰달라는 탄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망설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깊은 밤 커다란 화물차 운전석에서 졸음과 고독을 이기며 달려가는 화물차 운전수에게서 발견했습니다.

2003년에 세상에 나와 그로부터 5년 뒤인 2008년 서울 산울림극장에서 임영웅 선생님의 연출로 공연되었던 이 작품이 다시 5년 후, 부산에서 손병태 선생님을 만나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0년 전, 이 작품을 쓸 때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극은 시종일관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영원과 조우하려는 한 인간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언제나 그 경계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의 고독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대본을 다시 보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어설픈 면도 많지만, 어쩌면 그 시점이 었기에 쓸수 있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합니다.

<내가 까마귀였을 때> 이후 1년만의 재회, 반갑고 감사합니다.

작가소개

1986년 <꿈이라면 좋았겠지>로 부산일보 신춘문에 희곡부분에 당선된 후, <인류 최초의 키스>, <웃어라 무덤아>, <발자국 안에서>, <일주일>, <백중사이아기>, <달이 물로 걸어오듯>, <기경방문>, <주인이 오셨다>, <내가 까마귀였을 때>, <지하생활자들>, <갈집 속에 아버지> 등의 창작극을 발표하였고, <엄마를 부탁해>, <내 심장을 찌라> 등의 각색 작품과 오페라 <연서>, <처용>을 선보였다. 2011년 대한민국연극대상 희곡상을 수상하였다.



작가
고 연 옥

작품의도

"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이란 객관적 예시나 증명이 불가능하다. 마치 달이 물로 겹어오듯 눈에 보이지도, 말로 할 수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만나지는 것이다."

창작극 <달이 물로 겹어오듯>은 인간의 내면과 인간 상호간의 관계, 진실과 화해라는 주제를 통해 오늘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켜 보고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이 사회를 보다 안전한 가치가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마치 주인공 수남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고 확인 받고 싶어 한다. 말로 듣지 않고선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처럼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을 찾고 생각한다. 그리고 종종 그러한 생각들 끝에 결국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곤 하는 것이다.

작품줄거리

- 1) 이 작품은 아내와 함께 의붓어머니와 딸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던 한남자의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구상되었다. 아내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그는 판사에게 자신의 형량을 낮춰달라는 탄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망설였다.
- 2) 도심변두리의 술집 여종업원인 경자는 화물차 운전수인 수남과 이십년이란 나이 차이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민다.
- 3) 경자가 임신 9개월인 어느 날 만삭인 경자를 위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딸기를 사두고 새벽에 집에 돌아온 수남에게 경자는 자신이 살해해 정몽 속에 숨겨둔 두 구의 시체를 보여준다. 경자의 새엄마와 여동생의 시체이다.
- 4) 경자는 감옥에서 이기를 낼 수 없다면서 수남을 남겨두고 떠나려하고, 수남은 자신이 이기와 경자를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자수하겠다고 경자를 설득한다. 다음날 경자를 대신해 자수한 수남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모르고 있던 경자의 과거진실과 점점 자신을 폭력남편이자 잔인한 살인자로 돌아가는 경자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혼란과 갈등 속에 빠져든다.
- 5) 결국 재판일이 다가오고 수남은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되는데.....



수남 호 민



경자 김지연



술집마담, 새엄마 구민주



형사, 국선변호사 엄찬석



검사 안재성



미나, 여동생 장나윤



연출 손병태



작가 고연옥



무대연출 이종근



조명디자이너 최광욱



무대디자이너 김부성



조연출 최원준



조명op 우지현



음향op 김채운



진행 김희진



진행 한아름

회수	작품명	일 시	장 소	작(번역)/각색	연출
1	광안리의 딸	1995.10.21.~ 10.23.	문화회관소극장	박원돈	고인범
2	날 보러 와요	1996.6.26.~ 7.7. 1996.10.	놀이소극장	김광림	손병태
3	아들과 딸	1996.10.25.	문화회관소극장	박원돈	고인범
4	영웅광대	1996.11.15.~ 11.23.	놀이소극장	김경화	김경화
5	루브	1997.4.10.~ 4.21.	놀이소극장	머레이쉬스칸	고인범
6	어디 한번 두고 보자	1997.9.25.~ 10.5. 1997.10. 1997.11.	문화회관소극장 수영구 울산 현대아트홀	박원돈	고인범
7	너도 먹고 물러나라	1998.9.3.~ 9.13. 1998.10. 1998.11.	놀이소극장 수영구 울산 현대아트홀	윤대성	김동우
8	오필리어	1999.5.1.~ 5.2.	시민회관소극장	김광민	고인범
9	응고집전	2000.2.17.~ 2.26. 2000.4. 2000.6.	놀이소극장 시민회관소극장 가마골소극장	김동우	김동우
10	날 보러 와요	2001.3.28.~ 3.29. 2001.4.8.	시민회관소극장 창원늘푸른전당	김광림	손병태
11	너도 먹고 물러나라	2001.6.	합안	윤대성	김동우
12	사랑산조	2001.10.14.	광안리아외무대		김동우
13	오필리어	2002.8. 2002.8.31.~ 9.1.	자유바다소극장 금정문화회관소극장	김광민	김동우
14	향교의 손님, 뉴시터 전쟁	2004.7.23.~ 7.25. 2004.7.30.~ 8.1.	액터스소극장	이근삼	김동우
15	강동시장	2006.4.8. - 4.9.	시민회관소극장	이철우	이종근
16	합합뮤지컬 질풍	2006.9.22. - 10.22.	가마골소극장	박현철	손병태
17	환화여, 환화여	2007. 4. 9 - 1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김숙현	정순지
18	뮤지컬 천년의 향	2007. 5. 17	하동 썬계사 앞 주무대	박현철	손병태
19	돼지사냥	2008. 10. 29 - 11. 2	경성대 예노소극장	이상우	손병태
20	경숙이, 경숙아버지	2009. 11. 16 - 19	울속도문화회관 대극장	박근형	손병태
21	합합뮤지컬 "질풍"	2010. 11. 20 - 27	울속도문화회관 대극장	박현철	손병태
22	양파	2011. 9. 19 - 21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김수미	손병태
23	내가 까마귀였을때	2012. 10. 24 - 27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고연옥	손병태